

4) 교회 돌봄

1. 중보기도

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1) 다락방 식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 2) 헌당감사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드리도록
- 3) 선교페스티벌을 통해서 선교헌금과 일반건축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 4) 환우들이 회복되어 다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②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 1) 니카라과(정석훈 선교사)
어린 두 아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건축 중인 예배당이 잘 완공되도록
- 2) 헝가리(김홍근 선교사)
루틴 사역을 통해 난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세워진 리더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3) 필라델피아(김앤디 선교사)
봄 학기를 잘 진행하여 마칠 수 있도록
교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건축 사역을 잘 마치도록
- 4) 말레이시아(이경근 선교사)
진행 중인 전도와 어린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더욱 더 건강하시도록

2. 사역나눔(주보참고)

- ① 이번 달에 다락방이 동참할 교회행사와 광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② 이번 달에 우리 다락방에서 섬겨야 할 교회 봉사는 무엇입니까?

5) 모임 마침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헌금을 드린 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다락방 모임 나눔지

1) 경배 찬양

아래의 찬양곡 중에서 원하는 곡을 찬양합니다.

찬 양 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맘속에 온전히	내 영혼의 그윽히 (469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35장)

2) 마음 열기

2020년 우리 교회 달력(The Holy Spirit) 3월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보고, “성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에게 나누어 보세요.

3) 설교 나눔

▶ 요한복음 14장 26-27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설교 문제>

- 1) 원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이다.
(눅24:27, 32, 44-45)
- 2)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들이 “서로 ()하는 것”이다. (요13:34-35, 14:15,21)
- 3) 성령의 능력의 본질은 ()의 능력이다.
(갈5:22-23, 고전13:4-7)
- 4)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의 열매이다.

<설교 적용>

1)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기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로 이어진다. 성령충만은 곧 사랑충만이다.” 를 읽고, 성령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2)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뜨거웠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뜨겁게 성경을 사모할 것인지 자신의 결심을 나누어 보세요.

3) 3월 15일(주일) 오후 5시에 드리는 우리 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각자의 마음의 감격을 나누어 주세요.

<3월 설교계획> 성경과 성령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엡 5:18)

3월 01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9)
요한복음 14장 26-27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3월 08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10)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3월 15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11) 헌당예배 오후5시
에베소서 4장 13-16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3월 22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12)
사도행전 16장 14-15절
예수를 영접케 하시는 성령님

3월 29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13)
이사야 59장 20-21절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